



회원 여러분 나흘 후면 한가위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예년과 다르게 만나서 마음 나누는 것도 불안한 형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미워하지 않고 혐오하지 말며 어떻게 해서든 함께 살아야한다는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연구원의 슬로건처럼 모두를 위한 내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가위, 몸 거리는 멀다 해도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향해 소중한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 나누는 날 지으시길 빌겠습니다.

■ 영상택배 시즌2 – 두 번째 이야기 “침금동인”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
CURATOR'S CHOICE IN SEPTEMBER



국립고궁박물관

이번 뉴스레터와 함께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국립고궁박물관 큐레이터가 추천한 왕실 유물 가운데 하나인 청동 인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 어두운 색깔의 청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몸에 작은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청동인체상입니다.

정확한 침구술을 익히는 연습을 위해 제작된 이 청동상과 관련해 <승정원일기> 1747년 (영조 23년) 8월 24일자에 따르면 “인원왕후(1687~1757)를 치료하기 전 두 명의 의관을 선정할 때 바로 이 청동인체상으로 시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왕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인체상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이 유일합니다.

“침금동인” 소개 영상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의학기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권해 드립니다.

카페 반 고흐 Cafe van Gogh

- 카페 산책 5 -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아를르는 프랑스 남쪽 프로방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프로방스는 기온이 따뜻하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풍광이 좋아 유럽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까닭에 알퐁스 도데의 「별」, 「아를르에서 온 처녀」 등 단편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그리고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 또한 세계적인 명작이다. 알퐁스 도데와 장 지오노는 프로방스가 고향이라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국의 한 귀족 여성은 아예 이곳 프로방스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느낀 체험담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 프로방스」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문인들만이 아니다. 화가 고흐도 이곳 아를과 인연이 있다. 네덜란드 태생인 그는 파리의 몽마르트에서 그림을 그렸으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아를로의 이주는 이즈음 가깝게 지내던 로트레크의 “만약에 남부 프랑스에 갈 의향이 있다면 아를에 가게, 그곳엔 미인이 많다네”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에 시달리던 고흐였기에 좀 더 밝고 따뜻한 곳이 그에게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고흐는 1888년 2월 파리를 떠나 아를로 내려갔다. 물론 그는 이곳에서도 오래 정착하지 못했지만, 15개월 머무는 동안 아를의 자연의 평화로움과 그 따뜻한 빛에 매료되어 「별이 빛나는 밤」, 「밤의 카페 테라스」, 「해바라기」 등 300여점의 작품을 그려냈다.



고흐의 명작 「밤의 카페 테라스」



그림의 소재가 되었던 지금의 카페 야경

필자 역시도 프로방스 지역과 그곳의 '아를'이 가보고 싶은 곳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스페인 야고보의 길 자전거 순례 중에 먼저 아를을 들렸다. 자전거를 비행기에 싣고 로마에 도착한 후 마르세이유와 아비뇽을 거쳐서 오전에 아를에 도착하였다.



아를 기차역

유스호스텔에서 짐을 풀어 놓기가 무섭게 곧장 고흐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맨 먼저 그의 명작 「밤의 카페 테라스」 현장을 찾아 갔다. 그런데 낮이어서, 익히 보아왔던 그 그림의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밤에 다시 오기로 하고 고흐가 입원 했던 생레미 병원, 「별이 빛나는 밤」의 론 강둑에 자전거를 세웠다. 이곳 역시 대낮이라 별은 없고 조용히 흐르는 론강을 바라보며 그 그림의 분위기만 상상하였다. 그리고 시내 외곽에 있는 고흐의 다리 등지를 부지런히 찾아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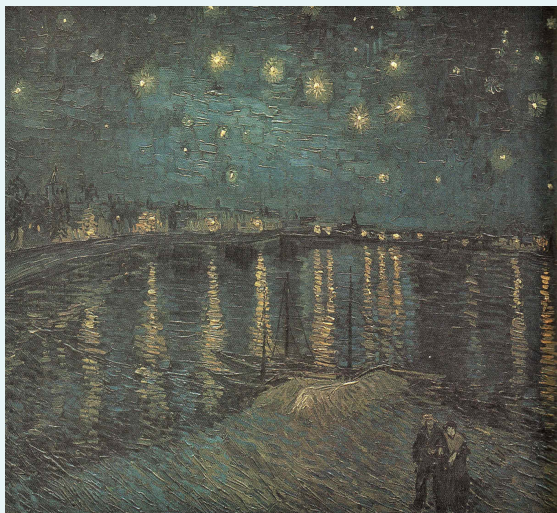


그림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의 현장 론강

거의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자전거가 유용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만약 자전거가 아니었다면, 시내를 다 돌아볼 수 없었을테고 택시로 다닌다면 상당한 돈을 지불했을 것인데, 자전거가 다 해결해 주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해는 기울고 어둠이 내렸다. 고흐 카페의 분위기가 살아날 시간이 된 것이다. 그곳은 낮에 갔던 곳이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카페의 광경은 고흐의 그림과 흡사한 느낌을 주었다. 고흐는 노란색 조명등으로 인한 건물 따듯한 분위기에 끌려 자주 이곳에 들렀고 자신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는 이 카페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고흐는 이 카페의 정경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음이 틀림없다.

아무튼 고흐는 그의 인간사 측면에서 본다면 고뇌의 연속이었고 인간관계도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비극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예술 세계는 고통과 번민을 그림을 통해서 승화시킨 위대함을 지닌 화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아를에서 원 없이 작품 활동을 하였기에 밤의 카페도 해바라기도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고흐의 작품 세계로 애호가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반 고흐 카페 앞에서



고흐 그림의 소재였던 도개교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신비한 돌구멍 절 <팔공산 중암암> 첫 번째 이야기 “갯바위 모신 팔공산”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갯바위 부처 | 지난날에는 경상도 불자들의 소원 하나는 꼭 들어주신다고 해서, 이제는 모든 불자들의 소원 하나는 꼭 들어주신다고 해서 전국 3대 기도처의 하나로 꼽힌다.

팔공산은 대구가 자랑하는 위풍당당한 산이다. 팔공산은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길고 긴 자락을 드리우며 북동쪽에서 한 발짝 물러나 대구를 에둘렀다. 그래서 일찌감치 ‘갓바위 부처님’을 해발 850m의 높다란 관봉冠峰에 모셨다. 갓가지 소망을 품은 전국의 나약한 중생들을 불러다가 포근한 품에 안아 토닥거리는 영험한 산이 되었다. 팔공산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산이자, 대구의 진산鎭山역할을 한다.

백두대간의 태백산에서 흘러나온 낙동 정맥은 백암산과 보현산을 거치는데, 그 줄기 하나가 팔공산을 세웠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방립산에서 서남방으로 몸통을 빼낸 지류가 화산을 거쳐 경산시와 군위면 사이의 능성재를 지나면서 먼저 관봉을 세운다. 그 힘찬 몸부림은 염불봉과 동봉으로 이어져 1,193m의 비로봉으로 크게 솟구친다. 그리고 날카로운 등지느러미에 서봉과 파계봉을 일으키고 다시 ‘톱날 능선’을 빛낸다.

한티재와 가산을 거친 이 지칠 줄 모르는 기세는 마침내 서쪽의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를 거쳐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이때 팔공산의 장엄한 행보가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을 거친다. 거대한 몸통의 남쪽 경사면은 깎아지른 장벽처럼 웅장하고 장쾌한 모습이다. 반면 북쪽 기슭은 영천시와 군위군을 보듬고 부드럽게 흘러내려 마냥 정답다.

낙동 정맥의 정기 속에서 저절로 영험해진 팔공산에는 예로부터 수많은 명찰과 암자들이 터를 열었다. 동으로는 은해사銀海寺, 남으로 는 동화사桐華寺, 서로는 파계사把溪寺, 북으로 수도사修道寺가 대표적인 사찰이다.

팔공산이란 이름의 유래는 후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후백제의 견훤甄萱이 신라의 경애왕景哀王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분개한 고려의 왕건王建은 견훤을 치기 위해 안동을 향해 달렸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졌는데, 바로 지금의 팔공산 인근에서 왕건은 견훤에게 포위되기에 이르렀다.

포위망이 점점 죄어들자, 왕건과 외양이 무척 닮은 신숭겸申崇謙은 궁여지책 끝에 왕건의 갑옷을 입고 대신 적진으로 향하였다. 왕건은 몇몇 측근들과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김천의 직지사로 몸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왕건은 신숭겸을 비롯한 여덟 장수의 목숨을 곱다시 내주고 말았다. 이때 숨진 여덟 장수의 충정은 마침내 팔공산이란 이름으로 기려졌다. 팔공산은 바로 ‘여덟八 공신公들의 넋이 깃든 산’이란 의미다. 본래 이름은 공산公山이었다.

다음 회는 <팔공산 중암암> 두 번째 이야기 “팔공산 은해사”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